

神知識에 대한 考察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李 根 三*

全知全能하시고 無所不在하시며 永遠自存하시는 창조주 三位一體 하나님은 自身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有限한 人間에게 창조로서 啓示하시고 범죄한 人間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救援의 啓示로서 알려주셨다.

永存하셔서 自身을 啓示하시는 主體이신 하나님과 그 啓示를 받아 인식할 수 있는 神의 形相으로 지음받은 客體人間과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관계를 맺게하는 啓示가 있으므로 비로소 神知識이 形成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시는 絕對者이시므로 有限者는 그 無限絕對者를 完全理解는 할 수 없는 것이다.

神知識을 論할 때 이 限界線을 認定하고 神의 神祕性을 認定하는 立場에서 神의 不可理解性을 살피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I. 神의 不可理解性(incomprehensibility)

이 말은 有限한 理解를 가지고 無限하신 神에 관하여 完全無缺한 知識을 가지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할 때 쓰는 말이다.¹⁾

神의 不可理解性은 神이 完全한 啓示로 주신 眞理에도 불구하고 神에 관하여 아직도 完全理解는 不可能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²⁾ 啓示의 領域內에 있어서 有限한 被造物은 完全하고 全體的인 正確한 神知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저한 完全理解는 언제나 人間의 力量을 넘어선다. 神의 不可理解性은 神의 本質과 그의 完全에 속한 超絶的 獨立성과 特異성에 있다.

神의 偉大性은 根本的이고 永遠히 측량치 못할 神祕이다. 神의 啓示와 성령의 照明으로 우리가 神을 참으로 알 수 있고 交際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知識은 항상 被

*교수, 이론신학 전공

1) The finite cannot grasp the infinite (finitum non capaxinfiniti)

2) 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The Banner of Truth, Trust, G. B., p. 21- "that which is hidden behind the curtain of revelation is entirely unKnowable. We cannot approach it by means of our thought, imagination or language."

造된 人間의 것이다.

神은 自身을 창조와 구속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完全充分的 神知識은 없다.

神의 不可理解性은 神의 存在와 그의 完全하심과 超越的 榮光과 그의 神祕的 關係를 神의 子女들이 表現하는 神學思想의 根本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神의 無限하심 超越性과 그 結果的 不可理解性은 神祕와 尊敬心은 우리에게 항상 일으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깊은 믿음과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神의 超越的 不可理解的 榮光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神知識 理解에 있어서 最高絶頂에 이르는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가운데와 충만하신 榮光中에 거하심을 참으로 의식하게 된다.³⁾

이렇게 神의 不可解性은 懷疑主義나 不可知論이나 否定神學에서 말하는 超越的 存在에 대한 知識의 不可能이나 아는 길을 否定하는 것과는 全然 다르다. 基督教 神論은 神의 啓示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 知識은 眞理이다.

神學은 神을 아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神知識)”으로 부터 시작했고 제네바 교리문답 제 1 문답은 “인생의 주요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神의 不可解性 敎理는 懷疑主義나 不可知論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神의 啓示를 통하여 알게 된 神知識은 참된 知識이지만 神이 自身을 全的으로 啓示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아는 神知識은 完全知識이 아니고, 啓示된 것 마저도 完全理解는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II. 神知識의 源泉

神知識은 비록 不可理解的 이기는 하나 啓示에 의해서 可能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3) 시14:3 “신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한다” 함은 계시로 알 수 있으나 완전이해는 불가능하다. 신의 위대하심의 不可解性이 신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 시 147:5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 지혜가 무궁하사도다” 사40:28 “명철이 한이 없으며” 그러므로 백성이 그의 행하심에 신뢰로서 기대한다. 롬11:33, 34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 길을 측량치 못하고 찾지 못함(사40:13; 시145:3; 사40:28) 욥 5:9; 9:10; 11:7; 37:23; 40:4; 42:3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욥은 고난 문제와 관련하여 신의 不可理解性을 언급하는데 하나님 자신은 물론 그의 행하시는 일이 놀랍고 측량할 수 없다고 한다. 시139:6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지식을 질적, 양적으로 사람의 지식과 구별됨으로 너무 기이해서 미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사55:8, 9 “내 생각은 너를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 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대조
- ②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람의 불의와 악에 대한 용서
- ③ 하나님의 길과 생각의 주권적 효능은 포로된 백성에게 위로를 준다. 이와같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너무 기이해서 인간에게 不可理解的이다.

마11:25-27

고전2:6-16; 13:8-13

4) 李鍾聲, 神論, pp. 130-141. 참조.

우리의 神知識의 源泉은 啓示에 대한 理解가 있어야 할 것이다. 啓示는 基本的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곧 一般啓示와 特別啓示이다. 一般啓示는 神自身을 창조주로서의 창조와 우주 통치자로서의 섭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신 것이고 特別啓示는 神自身の 啓示와 現顯을 특수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하는 것으로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A. 一般啓示

一般啓示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一般啓示는 言語樣式보다는 實際的으로 自然과 歷史와 人間의 實存을 통해서 하나님 自身을 나타내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一般啓示에 몇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

一般啓示란 정말 있는 것인가? 一般啓示의 효력은 어떤 것인가? 自然神學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등이다.

1. 一般啓示의 領域

전통적으로 一般啓示의 領域은 自然과 歷史와 人間構造이다. 성경은 창조된 世界秩序를 통하여 神知識이 可能하다고 한다.⁵⁾ 詩篇記者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시 19:1)고 했으며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롬 1:20)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창조하신 세계에 자신의 증거를 남기셨다고 말한다. (행 14:17)

一般啓示의 첫 領域은 創造世界의 놀랍고 印象깊은 自然이다. 이는 지혜롭고 能力있는 분의 복잡한 多樣性과 美를 計劃하고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지적한다. 夕陽의 美를 바라보는 사람이나 複合的 機構를 연구하는 生物學者는 神의 偉大性을 말하게 된다.

칼빈은 一般啓示의 첫 樣相인 하늘과 땅은 不可見的 神을 反映하는 거울과 같고⁶⁾ 神의 숨씨를 公開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劇場과 같다.⁷⁾고 했으며 저 精密한 天體와 그 正確한 運行은 神의 영광을 雄辯的으로 說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그래서 칼빈은 “神은 宇宙의 全體構造 속에 자신의 完全하심을 나타내어서 날마다 自身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를 억지로라도 바라보도록 강요해서 보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宇宙적 展示에서 神의 存在만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듯이 “그의 보이

5) millan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I. P. 154.

6) Calvin, Institute. 1:6:1

7) Ibid., 1:5:8, 11:1:14:20

8) Calvin, Commentary on Psalm 19:1

9) Calvin, Institute, 1:5:1

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까지 알게 된다. (롬 1:20)

물론 神의 本質은 不可理解的 이라 할지라도 神의 存在와 그의 屬性, 能力, 지혜, 의, 선, 자비, 진리, 공의와 판단은 宇宙에 나타 났다고 칼빈은 말한다.¹⁰⁾

그러므로 창조세계의 美와 尊嚴을 쳐다보는 눈을 가진 자는 神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이렇게 神의 창조 속에서 神을 알 수 있는 것이다.

一般啓示의 둘째 領域은 攝理的 歷史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 하시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고 계신다면 歷史의 部分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神의 役事의 추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사도행전 14장을 주석하면서 雨水로 땅을 적시는 것과 太陽으로 熱과 光線을 내어서 땅이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만물을 지혜롭게 그리고 자비롭게 支配하시는 神의 存在를 強力하게 증거하고 있다.¹¹⁾고 한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保存하시며 기뻐하시며 주관하시되 특히 그의 道德的 判斷은 神의 攝理事役속에 分明하다.

즉, 賞善罰惡의 原理를 가지고 攝理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칼빈은 이 事實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全人類를 돌아보시되 특히 그가 格外히 살피시고 기뻐하는 教會를 통치하심에 유의 하신다”¹³⁾고 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자비하신 세상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能力, 선하심과 公義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一般啓示의 셋째 領域은 人間 즉 神의 最高創造이다. 때로는 神의 一般啓示가 사람의 身體構造와 精神的 能力에서 볼 수 있지만 神的 性稟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人間の 道德的, 靈的 성품에서이다. 인간은 道德的 判斷 또는 正邪의 判斷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感情的 또는 形便上의 것들 보다 以上の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칸트가 그의 純粹理性批判에서는 形而上學的 懷疑主義에 빠져서 有限한 存在는 絕對者를 全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의 實踐理性判斷에서는 道德的 當爲性이 死後의 生과 價値와 神的 保證의 假定을 要求한다고 聲明하였다.¹⁴⁾ 近年에 C. S. Lewis, Edward Carnell, Francis Schaeffer등도 人間을 특징짓는 道德的 價値에 關心을 쏟고 있다.¹⁵⁾ 一般啓示는 또한 사람의 宗教的 性格에서 볼 수 있다. 文化, 民族, 年代, 場所를 勿論하고 人類는 自身들보다 높은 實在의 存在를 믿어왔다. 信仰의 本質과 禮拜樣式은 宗教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神概念, 神精神의 世界的 傾向을 人類經驗속에 存續하고 있고 시행되고 있다. 칼빈은 이것을 一般啓示의 內的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內的 神知識인바

10) *Ibid.*, 1:5:1; Commentary on Psalm 19:1

11) Calvin, Commentary on Acts 14:17

12) Calvin, Institute, 1:5:7-8

13) *Ibid.*, 1:17:1

14) see Theodore M. Green, The Historical context and Religion significance of Kant's Religions, xxxvii~1xv in Kant,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Harper, 1960.

15) C. S. Lewis, Mere Christianity, Mac Millan, pp. 17-39 Edward Carnell, Christian Commitment: An Apologetic, Grand Rapids Eerdmans, pp. 80-116 Francis Schaeffer, The God who is there, Inter-Versity, pp. 119-25

이 知識은 神의 形相(imago Dei)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사람은 神의 形相으로 神에게 關係되고 一般思籠을 힘입어서 창조주 神을 直接으로 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두에 “우리의 지혜는 …… 두 部分으로 구성된다: 神知識과 人間에 대한 知識이다”¹⁶⁾고 함과 같이 神知識은 自我意識을 直接으로 包含한다. 그러므로 神을 아는 直觀的 知識은 우리 自身을 아는 知識과 必然的으로 關聯되어 있다. 그러므로 神의 形相속에 形成된 우리의 知識은 神의 實在와 性稟을 理解하는 認識이 되어진다. 이것을 칼빈은 神觀念(Sense of Deity, sense of divinity)¹⁷⁾ 또는 宗教의 씨(Seed of religion, religions propensity)라고 하는데 “사람이 모든 다른 생물들 위에 뛰어나 唯一하게 理性과 知性을 받았고 저희 良心속에 正邪를 判斷하는 能力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영원한 빛의 어떤 直觀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것이다. 이 “神觀念”이 있어서 人間은 언제 어디서나 宗教를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조건속에 있는 人間을 비추는 빛은 良心을 全人類에게 부여했다고 한다. 이 良心은 오래전에 두 돌판에 새겨진 神의 道德的 律法에 대한 內的 증거라고 칼빈은 말한다.¹⁸⁾ 良心은 神의 道德的 性稟에 대한 無言의 증거를 가지고 善과 惡을 區別하며 神에 대한 義務를 생각하게 한다. 이와같이 直觀的 神觀念과 良心을 받았기 때문에 無知를 타할 자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의로우신 진리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존경과 예배와 도덕적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¹⁹⁾ 神은 그의 창조하신 世界の 主로 王이시다.

萬物을 自己榮光을 위하여 統治하시며 人間과 天使들이 神을 禮拜하고 존경하도록 모든 것에 自己의 完全 하심을 보이신다.²⁰⁾

2. 一般啓示와 罪의 영향

一般啓示로 주어진 창조주에 대한 神知識은 罪人에게 있어서는 연약으로 無能化되고 교만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救援과 참 宗教에는 이르지 못한다. 救贖에 이르는 知識은 自然과 歷史와 良心에서 얻을 수 없다는 事實은 自我를 啓示하신 神의 過誤가 아니고 人間の 過誤에서 온 것이다. 다시 칼빈은 “참된 神知識에 관하여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타락하여 世界 어느곳 에서도 참된 경건을 찾아볼 수 없다”²¹⁾고 하였다. 一般啓示는 神禮拜와 참된 敬虔을 갖는 本來의 目的을 成就하지 못하였는데 그 理由는 첫째, 罪人이 腐敗로 말미암아 그의 認識機能이 不可能하게 된 것이다. 人間은 罪의 作用 때문에 救

16) Calvin, Institute, 1:3:1; 1:4:4

17) *Ibid.*, 1:3:1-2; 1:5:1

18) *Ibid.*, 2:7:1

19) Calvin, Commentary on Romans 2:14-15

20) J. I. Packer, Knowing God, p. 15

21) Calvin, Institute, 1:4:1

援에 이르는 神知識이 不能하게 되었다. 둘째, 타락한 人間의 마음은 罪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罪人은 救援에 이르는 純粹하고 明確한 神知識에 들어갈 수 없다. 칼빈은 감히 가장 銳利한 罪人이라 할지라도 “두더지 보다 더 소경”이라고 말한다.²²⁾

즉, 靈적으로 人間은 全적으로 腐敗하여 神國과 靈의 生命에 관하여는 人間의 理性的 빛이 黑暗과 하나도 다를바가 없고 理解能力은 소경과 같다. 이렇게 타락한 心靈은 一般啓示에서 神이 願하시는 완전한 知識을 얻지 못하므로 더 完全하고 客觀的 啓示가 要求되는 것이다.

一般啓示는 참된 敬虔을 產出하지 못한다. 그 理由는 罪人의 타락한 심령에서 나오는 오만 때문이다. 타락한 人間의 어두움은 虛妄과 완고함과 惡意를 同伴한다. 神知識의 씨를 培養하고 救援의 열매를 갖게하는 代身에 罪人은 神知識의 씨를 반역하고 발로 짓밟아 버린다. 만일 人間이 타락以前의 原狀態에 있었다면 神의 창조와 自然에서 神知識을 갖는 일에 失敗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罪가 들어오므로 人間의 생각은 神을 背叛하고 그의 態度는 神에 對항 決定的 원수가 된 것이다. 그러나 Carl Henry가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啓示에서 完全히 떠나서 人間은 비록 왜곡 되지만 그래도 制限된 神知識을 갖고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²³⁾

이와같이 自然人도 神이 있는 것과 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창조주로서의 神을 아는 知識을 培養하기를 拒否함으로써 人間은 神的 公義앞에 法的으로 有罪하게 된 것이다.²⁴⁾ 人間은 그 마음속에 그렇게도 神奇하게 주어진 神知識의 씨를 腐敗시킨 罪와 善하고 성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罪의 責任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칼빈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一般啓示를 믿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罪로 타락한 人間에게 一般啓示를 통한 自然神學은 全적으로 否認한 것을 알 수 있다.

“神은 그의 숨씨로 神과 神의 不滅의 王國을 너무나도 빛나게 비취었으나 人間은 너무나 미련하여 神의 그 빛난 顯現을 보는데 어둡고 거기에서 아무런 有益도 얻지 못한다.”²⁵⁾

3. 自然神學

自然神學은 몇가지 假定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客觀的이고 有效하고 理想的인 一般啓示이다. 이 啓示는 神이 實際로 自然속에 스스로를 알게 하셨는데 이 啓示를 누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가 하는 데는 상관없이 창조시에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神에 관한 眞理가 실제로 창조속에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 같은 다른 자

료에서 이미 神을 아는 신자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은 아니다. 우리 주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世界는 基本的으로 神의 創造의 숨씨로 되어진 것이다.

둘째 假定은 창조에서 느끼고 배우는 사람의 完全이나 人間의 自然的 制限이나 罪와 타락의 영향이 創造主의 숨씨를 認識하고 正確히 해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思想은 알미니안主義나 페라기우스派로 기우려지되 아우거스틴主義나 칼빈 주의에서 온것은 아니다.

세째 假定은 人間의 마음과 피조물간의 調和가 있다는 것이다. 人間의 마음의 秩序는 基本的으로 宇宙의 秩序와 같은 것이다. 人間의 마음은 가지고 있는 資料에서 추리를 할수 있는데 그 思考過程의 構造가 아는 客體의 構造와 一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自然神學의 核心은 기독교 信仰의 一致 없이, 교회나 성경의 특별권위에 依支하지 않고도 理性만에 依하여 참된 神知識에 到達할 수 있다는 思想이다. 理性이라 할 때 여기서는 眞理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人間의 能力을 말한다.

教會史上 自然神學의 代表的 神學者는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眞理는 두 領域中 하나에 속한다.²⁶⁾ 낮은 領域은 自然의 領域이고 높은 領域은 思索의 領域이다. 높은 領域에 속하는 것은 權威로서 받아지나 낮은 領域에 속한 것은 理性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하게 된 배후에는 기독교가 유대주의자들, 回教徒들 그리고 異邦人들을 대할 때에는, 권위에 呼訴할 必要가 없는 中立的인 것을 가지고 理性의 人間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問題로 삼을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試圖한 것이다.²⁷⁾ 토마스는 神의 存在, 靈魂의 不滅, 카톨릭 교회의 超自然的 起源 등 기독교 信仰의 어떤 部分을 純粹한 理性으로 證明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²⁸⁾ 그러나 三位一體 神敎理와 같은 것은 다른 도움없이 理性으로는 알 수 없고, 권위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것은 啓示의 眞理이고 理性의 眞理는 아니다. 理性은 낮은 領域을 支配하고 높은 領域의 眞理는 信仰의 問題라고 했다.

4. 토마스의 神의 存在證明

토마스는 그의 神學大要(Summa Theologia)에서 說明하기를 “神의 存在는 다섯 가지로 證明할 수 있다”²⁹⁾고 하였다. 그 첫 세가지는 宇宙論 論證의 變形이고 그 넷째는 價値論的 論證이며 마지막은 目的論的 論證의 한 形式이다. 토마스의 다섯가지 證明은 全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公式에서 취한 것이다.

22) *Ibid.*, 2 : 2 : 18

23) Carl Henry, *God, Revelation and Authority*, Vol. I. p. 338.

24) Calvin, *Commentary on Acts* 14 : 17

25) Calvin, *Institute*, 1 : 5 : 2

26) Thomas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1 : 9 : 1

27) *Ibid.*, 1 : 2 : 3

28) *Ibid.*, 1 : 3 : 2

29) *Summa Theologia*, 1 : 2 : 3

첫째는 운동에서 原不動의 動者(Prine Unmoved-Mover)를 論證하고 둘째는 因果關係에서 첫 原因 存在를 論證하고 셋째는 偶然한 存在에서 絕對必要 存在를 論證한다. 넷째로는 完全의 程度에서 絕對의 完全의 存在를 論證하고 마지막 目的論의 方法은 世界의 지혜로운 統治에서 神的 計劃者의 存在로 論證한다.

이렇게 神的 存在를 自然世界에 나타난 結果에서 原因的 誇示로 말미암아 確立시킴으로서 토마스는 哲學的으로 神的 完全의 無限을 밝히는대로 나아간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論難이 있었다.³⁰⁾ 그러나 여기 몇가지를 가지고 토마스의 有神論 證明의 有效性을 評價한다면

1. 토마스는 神的 本質이나 性稟을 알기도 전에 神的 存在를 證明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이 存在한다”는 前提에 대하여 사람이 그 主題에 無識하고서 어찌 그 前提의 有效性을 自信있게 確立할 수 있겠는가? 純粹한 存在로서 특수한 屬性들의 定義없이 存在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토마스의 論證은 좋은 評價를 받기 어렵다.

2. 토마스의 原不動의 動者, 첫 原因, 必要한 存在 등은 아브라함의 살아계신, 공통하시는 神보다 推想的 哲學적 原理를 말한다고 批判을 받는다. 예를 들면 Brunner는 “神的 存在의 證明으로 된 ‘그 神’은 ‘살아계신 信仰의 神’이 아니고 知的 推想뿐이다.”³¹⁾고 하였고 Carnel도 토마스의 純粹經驗主義는 “기독교 神을 證明한 것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神을 證明하였다”고 한다.³²⁾

3. 토마스의 論證에 대해서 Kant의 “批判”의 힘이 계속해서 有神證明의 論證의 誇示를 疑心하고 있다. Gordon Lewis는 토마스의 根本的 理論에 疑心하면서 하는 말이 “嚴格한 經驗의 기초 위에서 因果律의 原理는 觀察할 수 있는 領域을 넘어서는 適用될 수 없다. 그 原因의 適用을 支持할 수 있는 立證할만한 증거는 없다”³³⁾고 한다.

4. 더우기 토마스의 神的 存在證明은 一定한 量의 循環性을 보이고 있다. 토마스는 “原不動의 動者”를 支持하는 첫 證明에서 다른 움직임은 것으로 운동하게된 一環의 萬物들은 無限性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動者—被動者 關係가 無限의 復歸를 할 수 없는 理由는 “그렇게 되면 原動者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³⁴⁾

이제 결론적으로 토마스의 有神論證明은 Gordon Clark의 말대로 이 論證은 循環的이라는 理由로 有神論 證明으로서는 無効하고 超越的 人格神 보다는 無人格의 原理를 結論으로 가져온다고 할 수 밖에 없다.³⁵⁾

30) 토마스의 神的 存在證明에 대해서 批判하는 것을 알려면 다음의 參考를 添附할 것이다. Goldon clark, Religion, Reason and Revelation, pp. 8. 35-39 Carl F. H. Henry, ad., Fundamental of the Faith, pp. 12-13 arther Holus, Faith seeks Understanding, pp. 141-2 Burt, Types of Religions Philosophy, pp. 102-10 Edward Cornell, Sntroduetion fo Chrietions 40-1 apologetics, pp. 126-39 John mac quarrie, Principles of Christin Theology, pp. 45-50

31) Emil Brunner, Revelation & Reason, pp. 340-41

32) Edward Carnele, Apologetis, p. 133

33) Gordon Lewis, Testing Christiamity's Truth-Clains p. 68

34) Thoms, Summa Theologia, 1 : 2 : 3

35) Gordon Clarle, Religion Reason, pp. 35-43

5. 칼바르트의 自然神學과 一般啓示 反對

바르트는 新神學者, Albert Ritschl, Adolf Van Hornacle, Wilhelm Herrmann 등으로 부터 教育을 받았다. 新神學은 自然神學의 立場으로 기울어지고 성경을 輕視하는 편에 선다. 이때에 바르트로서는 一般啓示와 自然神學에 關心을 가질 만한 理由가 있었다. 그것은 歷史的 發達과 神的 役事를 密接하게 一致시키는 경우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1914년, 94명의 독일 知性人 團體가 Wilhelm 皇帝의 戰爭政策에 찬성한 것이다. 바르트의 神學教授들의 이름도 그 名單에 나타났다. 神은 그의 뜻을 戰爭政策을 통해서 世上에 成就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들의 啓示觀이 歷史的 事件에 觀하여 極端의으로 無分別하게 한 것이다. 그나마 Ernst Troeltsch 교수가 神學部에서 哲學部로 移動함으로써 바르트에게는 新神學의 淺薄性과 破産을 경험하게 했다. 이렇게 1914년은 神學的 見地에서 볼 때 하나의 轉換點이 된 것이다.³⁶⁾

뿐만아니라 1930년대 初期에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絶望的 經濟의 因境속에서 독일은 Adolf Hitler의 國民 社會黨에 救援의 希望을 본 것이다. 그래서 國家教會의 大多數가 이 運動을 支持하고 그것을 歷史속에 일하시는 神的 길이라고 보았다. 바르트는 Nazi政府에 反對聲明을 한 結果로 독일에서 教授職을 박탈당했다. 이런 것을 바르트 思想의 背景으로 기억 해둘 만하다.

이제 바르트의 啓示觀 理解는 아주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啓示는 本質上 救援的이다. 神을 아는것, 神에 대한 正確한 知識을 가진다는 것은 그에게는 救援經驗에 관한 것이다. 다른 神學者가 무엇이래 했던간에 바르트는 로마서 1: 18—32에서 “사람 自身편에서 神 또는 神知識에 自然的 聯合을 가져온다는 말을 전연 不可能하다”고 強調한다.³⁷⁾ 바르트가 自然神學의 모든 形態를 排擊한다고 宣布했을 때 Brunner가 “自然과 恩惠”(Nature and Grace)를 1934년 出刊하여 自然神學을 주장하므로 同年에 바르트가 “아니다”(Nein)를 出刊하였다. 여기서 바르트는 브룬너를 가리켜 스클라스트 토마스 主義의 復活이다. 아니면 Schleiermacher, Ritschl, Herrmann의 自由主義 神學에 철저히 항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말하기를 “分명한 것은 이 길에 일들은 惡化 一路이다. Brunner는 自己 글의 初頭에 말한 福音主義 思想에서 저멀리 옮겨가고 말았다”³⁸⁾고 했다.

브룬너는 바르트와 함께 特別啓示에 상관없이 構成된 모든 自然神學을 강하게 反對하고 “聖經의 神學과 自然神學은 결코 同意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둘은 深刻하게 根本的으로 相反된다”³⁹⁾고 하였다. 그와 반면에 브룬너는 바르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말씀이 成肉하신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仲裁되지 않는 모든 神知識을 拒否함으로써

36) Karl Barth, God, Grace and Gospel(Edinbwgh, 1959.) pp. 57-58

37) Karl Barth, Chuirch Dognatioes (Edinburgh, 1957) vol, II/1, p. 121.

38) Kal Borth, “No!” in Barth and Brunner, Natural Theology, (London, 1946) p. 94.

39) Brunner, Revelation

極端的 反對로 責任없이 흔들고 있는 時計鍾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된 自然神學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이 時代의 神學的 任務이다. 내가 確信하는 바는 이 任務은 바르트의 否定的 神學에서는 멀리 떠나서 칼빈의 敎理에 아주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다.”⁴⁰⁾

이렇게 해서 브룬너와 決別한 바르트는 根本的으로 自然神學과 더불어 一般啓示를 全面否認하였다. 그 根源的인 理由는 그의 啓示觀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神의 特別啓示만을 믿는데 있다. 神은 그리스도안에서 그의 化육하는 恩惠를 통하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恩惠로서의 啓示와 啓示로서의 恩惠를 理解하도록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神學的 眞僞문제는 論할 必要도 없다.”⁴¹⁾ 罪人의 心靈에 恩惠의 나타나심은 말하지 않는 어떤 計劃的 表現도 참 啓示는 아니다.

自然神學的 否定은 그것이 神의 救援의 恩惠와 慈悲를 떠나서 神을 알려고 하는 試圖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바르트는 強調하기를 神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自身을 啓示하셨기 때문에 非基督教 宗教는 眞理가 전연 없다고 한다. 啓示는 언제나 오직 道成人身하신 그리스도 예수안에 神의 啓示이다.⁴²⁾ 道成人身을 떠나서는 啓示가 없다. 이 立場의 背後에는 Sören Kierkegaard와 Martin Buber에게 까지 가는 人格對人格, 主觀으로서의 實存主義 眞理概念 “主觀은 眞理다”가 깔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恩惠로운 啓示밖에서의 神知識의 可能性은 그리스도의 必要性을 排除한다고 생각한다. 바르트의 自然神學 攻擊은 自己가 직접 경험한 일도 있어서 理解가 된다 할지라도 一般啓示까지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反應이라고 생각된다.

바르트의 시 19편, 롬1: 18—의 解釋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음의 前提에서 必然的으로 오는 것이다.

첫째 神의 啓示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이라는 것

둘째 참 啓示는 無視되고 拒否되는 것보다 積極的으로 언제나 反應되는 것

셋째 神知識은 언제나 本質上 救贖的 또는 救援的이라는 것

바르트는 一般啓示를 말하는 듯한 聖經句節을 해석할 때 위의 前提的 假定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⁴³⁾

6. 一般啓示는 있으나 自然神學은 없다

시19: 롬1, 2; 행14: 15—17; 17: 22—31의 말씀들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神은 自身에 대한 啓示를 客觀的으로, 有效하게, 理性的으로 自然과 歷史와 人間에게 주신 것이 分明하다.

이 啓示는 사람이 觀察하고 理解하고 信仰하는 일에는 相關없이 客觀的으로 實在하

40) Brunner, "Nature and Grace" in Natural Theology, pp. 59-60

41) Barth, "70!" p. 71

42) Barth, in Revelation, ed., John Baillie and Hugh Martin, (New, York, 1937), p. 49

43) Millard J. Ericlson, Christian Theology I. p. 66

는 것이다. (시19: 1—2; 롬1: 19—20)

一般啓示는 다른 理由로 神을 아는 者들이 自然에서 알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이미 창조와 神의 계속적인 攝理로 말미암아 實在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사람은 一般啓示에서 神을 分明히 알지 못한다. 人間의 타락과 계속적인 罪惡된 行動으로 一般啓示에 두가지 영향을 가져왔다.

그 하나는 罪가 一般啓示의 증거를 망쳐 놓았다. 創造秩序는 지금 咀呪下에 있다. (창3: 17—19) 땅은 耕作하는 人間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3: 18) 여자는 子女生産에 많은 고통을 갖게 된다(3: 16) 被造物이 虛無한데 屈服하고 있다(롬8: 20) 被造物이 거기에서 解放됨을 기다리고 있다(롬8: 19, 21, 23) 아직도 그것은 神의 創造物이며 神을 계속 증거하고 있으나 창조시의 것과는 다르게 망쳐진 것이 되고 神을 증거하는 것은 흐려지고 말았다.

둘째로는 罪의 영향이 사람 自體에 미친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理解와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여러번 말하고 있다. 롬1: 21에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이 知識을 拒否하고 虛妄과 어두움이 따른다고 했다. 고후4: 4에는 이 어두움을 사람의 일에 소속시켰다. “그중에 이 世上神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제 一般啓示는 分明히 不信者가 그것으로 神知識에 이를 수는 없다. 바울이 말하는 一般啓示에 관한 陳述(롬1—2)은 人間이 죄인됨(롬3)과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롬10: 14) 복음의 말씀의 빛으로 보아야만 한다.

이렇게 全幅의 自然神學 構成의 可能性은 어렵게 된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必要한 것은 칼빈이 말한 “信仰의 眼鏡”이다. 이것은 칼빈이 罪人을 視力 좋지 못한 사람과 比較해서 말한 것인데 視力不足한 사람에게 眼鏡이 必要하듯이 罪人이 信仰의 眼鏡으로 잘 볼 수 있어서 창조속에서 神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結論으로 우리는 客觀的 一般啓示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自然神學을 構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이 問題에 대한 성경적인 見解이다. Bavinck는 다음과 같이 잘 표현 하였다.⁴⁴⁾

“自然神學에서 믿는 神知識은 人間의 理性的 產物이 아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事實을 前提로 한다,

첫째로 그의 창조 솜씨안의 神의 啓示를 前提한다. 즉 사람은 神을 찾지 않으나 神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는 이것을 自然속에 神의 役事의 方便으로도 하신다.

둘째로 人間便의 것을 또한 前提한다. 즉 이것은 창조속에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神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열린 눈을 의미한다. 그래서 異邦宗教들이 있는 것도 事實이기도 하나 그러나 人間은 理性的 自然의 빛으로 神의 啓示를 理解할 수는 없다.

44) 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pp. 61-2

세계로 自然啓示에 대한 神의 解釋을 前提로 한다. 이 解釋은 特別啓示인 聖經내에 서만 찾을 수 있다.

B. 特別啓示

特別啓示는 救援의 眞理를 가지고 罪人들에게 接近하는 神의 方便으로서 神과 救贖된 關係에 들어가는 知識을 믿음으로 갖게 한다.

1. 特別啓示의 必要性

왜 特別啓示가 必要한가? 그것은 人間의 타락이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思願的 關係에서 罪로 말미암아 喪失한 事實에 起因한다. 그러므로 그 關係가 다시 한번 回復되기 위해선 올바른 神知識을 가져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 神知識은 人間의 有限性에서 오는 自然的 制限 뿐만 아니라 人間의 罪에서 오는 道德的 制限 때문에 一般啓示를 超越하는 特別啓示에서 와야한다. 無罪했던 原狀態에서는 人間은 神에게 肯定的으로 依支하고 直接的으로 應答하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락후에는 神으로 부터 돌아서고 背叛하였다. 그러므로 신령한 일에 人間의 智慧는 어두워지고 無感覺하게 된 것이다. 人間의 神과의 關係는 喪失되었기 때문에 再建의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人間狀況은 本來보다 複雜多難하게 되었으므로 結果的으로 더 完全한 指示와 敎訓이 必要한 것이다.

特別啓示는 人間犯罪로 必要하게 된 타락후의 現象이라고 普遍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Warfield는 이것을 remedial revelation(補修的 啓示)⁴⁵⁾이라고 했다.

改革神學에서는 特別啓示와 一般啓示와의 關係는 連續的이고 補完的이다. 一般啓示의 不充分性이 特別啓示를 要求하고, 特別啓示는 또한 一般啓示를 要求한다.⁴⁶⁾

一般啓示가 없이는 人間이 特別啓示의 하나님을 알고 理解할 수 있게 하는 神에 대한 概念을 가질 수 없게 된다.

特別啓示는 一般啓示 위에 서는 것이다.

兩啓示의 關係는 相互補完的이고 補充的인 것이다.

2. 特別啓示는 人格的이며 陳述的이다.

特別啓示의 첫째 結果는 神知識이다. 이 知識은 神의 人格만 아니라 神의 役事, 創造, 神과 人間의 關係에 대한 知識도 의미한다. 또한 이 知識은 神이 人間에게 전달하는 참되고 客觀的이고 理性的인 소식도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Barth와 Brunner등이 주장했던 新正統主義의 啓示觀이다. 그것은 啓示는 소식의 전달 또는 眞理의 陳述이 아니고 神自身の 提示이다. 따라서 啓示는 陳述的이 아니고 人格的이라고 한다. John Baillie가 말한대로 우리의 信仰觀은 啓示理解를 크게 반영한다.⁴⁷⁾ 만일 啓示가 陳述된 眞理의 전달로 생각되면 그 信仰은 그 眞理를 同意하고 信仰하는 反應이라고 볼 것이며 그 反面에 啓示가 人格의 提示로 생각되면 信仰은 人格的 信仰이나 委託의 行爲로 보게 된 것이다. 後者에 따르면 神學은 啓示된 一連의 敎理가 아니다. 그것은 神自身の 啓示에서 發見한 것을 克服하는 教會의 試圖에 지나지 않는다. 이 啓示觀은 특히 新正統主義에서 갖는 것이다.⁴⁸⁾

啓示는 人格的이라는 立場은 Sören Kierkegaard의 客觀과 主觀的 眞理의 區別에서와 후기의 實存主義者들의 意見에 따른 것이다. 어떤 項目에 關해서 客觀的 情報을 얻으려는 目的은 根本的으로 自身の 統制下에 그것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만일 우리의 神知識을 根本的으로 客觀的(陳述的)인 것으로 알게되면 우리는 神을 神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고 神을 어떤 것, 어떤 客體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反面에 主觀的 眞理의 焦點은 客觀的 情報보다는 人格的 關係이다. 바르트와 그 學派의 사람들은 主觀的 知識을 강조할 때에 主觀主義에 빠져든다.

즉 眞理는 우리의 主觀的 反應이나 反映에 지나지 않는다는 立場이다. 이 함정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바르트는 信仰은 信賴(trust=fiducia)이지만 知識(knowledge=noticia)과 同意(assent=assensus)를 包含한다고 강조한다.⁴⁹⁾

나는 내가 正直하다고 믿는 사람을 信賴하고 그에게 내 自身을 맡긴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 관하여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와같이 啓示가 人格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啓示가 陳述的 情報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저희 信仰이 어떤 기초위에 있어야만 한다고 알고 있다.⁵⁰⁾

問題는 信仰에 充分한 기초를 잘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Feuerbach는 指摘하기를 信仰의 客體는 人間自體의 影像(self-projection)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陳述的 啓示觀을 가진 사람들은 神에 관한 確實한 것 즉 全知全能 無所不在, 三位一體를 알고 神을 믿는다. 그런데 新正統主義에서는 神은 우리에게 神自身에 대하여

47) John Baillie, Idea of Revelation, p. 85

48) 李鍾聲 博士는 그의 "神論"에서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啓示性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啓示性을 인정하지 않는 바르트와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啓示性을 인정하면서도 여러종류의 啓示가 있다고 하는 브룬너의 입장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그러한 先入感을 버리고 먼저 聖經의 啓示觀을 이해해야 한다."(p. 17)고 하나 "예수 이외에 어떠한 계시가 있을 수 없다"(p. 18)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啓示"라는 項目에서 말한다. 그런가하면 또 그는 "神을 알 수 있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고 했다. 神의 啓示者로서의 그리스도와 神言으로서의 聖書다"(p. 50)라고 하므로 啓示觀의 一貫性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49) Barth, church Dogmatics, vol I. Part 1, pp. 268-9

50) William Hordem, The case for a New Reformation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1959), p. 72

45)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74

46) Ibid., p. 75

아무말도 하지지 않았다. 오직 그를 만남으로 알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자기 누구이며, 어떤 분이라고 啓示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만나는 神을 어떻게 기독교 神이라고 알 수 있겠는가?

또한 神學의 問題에 있어서 信仰은 敎理的 陳述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啓示가 人格的이라고 主張하는 그들은 信仰을 正確하게 定義하려 하며 正確한 敎理的 理解를 強調하고 있다. 바르트와 브룬너는 自然神學, 神의 形相, 童貞女 誕生, 빈 무덤의 敎理를 가지고 많이 論難하였다. 서로서로 正確한 敎理를 세울려고 努力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敎理的 陳述들이 어떻게 非陳述的인 啓示에 關聯되고, 또 由來된 것인지?

브룬너는 말한다. “神은 敎義神學의 一連의 講義를 하거나 信仰告白을 제출하지 않고 自身에 관하여 確實하게 가르쳐 주신다. 神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지를 確實하게 말씀하신다”⁵¹⁾고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말은 브룬너가 피할려고 한 啓示된 眞理와 같은 것이 아닌가?

Barth도 자신이 쓴 “敎會 敎義學”에 6,000,000字에 達하는 陳述을 非陳述的인 만남에서 記錄했다. 그러므로 “新正統主義 앞에 敎理的 陳述과 人格的 만남의 關係가 아주 貧弱한 狀態의 統合을 이루고 있다.”⁵²⁾ 좌우간 Barth는 자신이 拒絶하는 根本主義者들과 같은 式으로 성경을 引用하여 敎理問題를 定立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陳述된 啓示를 반대하면서 敎理作成에로 陳述된 啓示를 引用하는 矛盾을 범하는 것이 된다. 神이 제일로 하시는 것은 自身을 啓示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自身에 한하여 무엇을 알려주심으로써 하신다.

啓示의 定義가 실재적 事件, 過程 또는 現在 啓示하는 것(the revealing)만을 위한다면 성경은 啓示가 아니다. 啓示는 오래 전에 있어왔던 무엇이다. 그러나 만일 啓示는 생산, 결과이며 또는 啓示된것(the revealed)이라고 하면 성경도 역시 啓示라고 할 것이다. 反應이 없이는 啓示가 없다고 하는 新正統主義의 強調는 message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효 하겠지만 아직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事實을 否認한다. 啓示가 만일 陳述的이면 그것은 保存될 수 있다. 그럴때 성경이 陳述的이라는 뜻에서 啓示이냐는 문제는 그것이 靈感됐느냐, 啓示된 것을 참으로 保有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啓示는 進步的(Progressive)이다. 즉 後期啓示는 前期啓示위에 선다는 것이다. 前後의 啓示는 相互補完的이지 相反的인 것이 아니다. 예수는 律法의 敎訓을 擴大, 擴張 하고 內面化 시켜 높이 評價했다. 종종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말하노니”라든가, 히브리서 記者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1:1-3)고 한 것은

51) Brunner Divine Human Encounter, p. 110

52) Bernard Ramm, The Pattern of Authority, p. 98

神의 啓示가 救援임과 똑같이 進行的이며 더 完全한 形態로 계속 進行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特別啓示는 곧 말씀의 啓示인데 人格的으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예수)으로 나타나시고 陳述的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성경)으로 나타나셨으니 우리의 立場은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둘을 다같이 말하는 것이다.

3. 特別啓示,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神의 最高, 最終의 啓示이다. (히1:1-2) 그리스도의 成肉身 以前의 모든 神의 啓示는 部分的이고 豫期的인 것이었다. 옛 啓示는 꿈과 幻像등으로 先知者들을 통해서 온 것이다. 새 啓示는 人格, 聖者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다. 그리스도 以前에 주어진 啓示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啓示는 다르지만 그것은 서로 反對되지 않고 相互補完, 補充的이다. 히1:2, 3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일곱 가지 事實 즉 그가 啓示이시며 神을 啓示하시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는 그가 만유의 후사되심, 둘째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심, 셋째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光彩이심, 넷째는 하나님의 本體의 형상되심, 다섯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심, 여섯째는 죄를 정결케 하심, 일곱째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심이다.⁵³⁾

예수 그리스도의 成肉身과 그의 生活은 神의 啓示의 絶頂을 이룬다. 그가 行하신 異蹟, 그의 죽음과 復活은 가장 集約的이고 集中的인 樣式의 救贖史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先知者들과 使徒들의 것을 넘어서는 神의 말씀이요 啓示이다.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超越하여 完全케 하시되 反對되지 않고 成就하신다고 했다. “내가 律法이나 先知者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完全케 하려함이라”(마5:17)

先知者들이 말할 때에는 저들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message와 하나님께 대한 message의 소유자 또는 전달자였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啓示는 또한 예수의 性格의 完全性에 나타났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가운데 살아있고 저들에게 神의 性稟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의 行動, 태도와 表情은 아버지 하나님을 비추어 주는 거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 가운데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준 것이다. 百夫長이 갈보리에서 아마 그전에도 十字架上에서 죽는 자를 많이 보았지만 예수에게서 전연 判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27:54)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다. 베드로도 이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의 무릎아래 엎드려 “主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罪人이로소이다”(눅5:16)고 하였다. 이들은 예수안에서 아버지의 계시를 본 사람들이다.

53) Robert Lightner, The god in the Bible, an Introduction to the Doctrine of God (Baker, 1978), p. 54

啓示는 行動과 말씀으로 함께 임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또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것은 그가 곧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가 아버지께 관한 것을 啓示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곧 人格의으로 나타내신 啓示인 것을 여러모로 밝힌 바 그리스도는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神의 人格을 啓示하셨다. 그는 아버지를 사람에게 선포하셨다 (요1:18; 14:8, 9; 딤후전3:16) 神의 榮光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려 졌다. (요1:14, 고후4:6; 사40:5) 하나님의 能力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啓示되었다. 이것을 예수는 여러 차례 여러모양으로 하셨다. (요3:2; 고평전1:24)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人格안에서 알려졌다. (요7:46; 고평전1:24) 하나님의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다(요일1:1-3) 또한 하나님의 無限하신 사랑이 구주로 말미암아 계시되고 과시되었다. (요3:16; 롬5:8; 요일3:16)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즉 인간들에게 그가 베푸신 끝없는 은총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 (눅2:40; 요1:17; 살후1:1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시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런 일들은 곧 神知識에 直接的인 源泉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요14:8, 9) 아버지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神知識이다.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永生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永生을 얻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하고 갖게 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의 地上生活 당시에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과 다른 점은 지금은 예수가 영적으로 신자들과 함께 하시므로 肉眼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말씀위에서 예수의 神性和 救贖的 희생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여러 해를 지내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며,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方法은 肉의 말씀이 아니고 福音書와 다른 성경에 그에 관하여 기록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 良心에 適用시킴으로서 말씀 하시는 것이다.⁵⁴⁾

4. 特別啓示 성경

66권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영감으로 記錄된 우리의 信仰과 生活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文書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The very word of God)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받은 것을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받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告白하는 웨스트민스트 信仰告白書에는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신구약 성경을 包含한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信仰과 生活의 法則이 되도록 주어졌다.”고 告白한다(1장2절)

54) J. I. Packer, Knowing God, p. 33

이 성경은 사람을 神의 形相으로 창조하시되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축복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셨다는 記事로 부터 시작하여 新天新地의 서술로서 끝나는데 거기 주민들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저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창조와 新天新地, 이 두 記事 중간에는 모든 하나님의 啓示가 記錄되어 있다. 그 內容으로 啓示는 하나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言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다. 성경의 中心 또는 絶頂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으로 約束과 成就가 同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요, 原理요, 種子이다. 그 씨가 完全히 實現되는 行動속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마치 太初에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있게 하심과 같이 그의 말씀으로 新天新地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成肉身하신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이라고”계속 宣布하심을 볼 수 있다. 그것에 應答하여 교회가 오고 오는 世代를 통하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초장의 양무리로다”라는 信仰의 言語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교회이 信仰宣布는 科學的 敎理가 아니고 깊은 信仰實存에서 부터 나오는 告白이며 信仰經驗에서 나오는 確信이다.

하나님은 어떤 冷冷한 概念이 아니고 살아계신 人格的 神이요,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백성들의 王이요, 主요, 牧者요, 救主요, 救贖主이시오, 도우이시오, 아버지 시다. 이와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經驗이다. 永生은 救援의 全體性이요,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요17:3) 그리스도 안에서 神을 아는 것은 永生과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함께 가져온다. 神을 아는 것은 그 自體가 곧 새롭고 영원하고 축복된 生이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성경의 敎훈에 따라서 기독교회는 神知識을 결정한다. 神學은 神의 啓示에서 神知識을 말하는 學問이다. 聖靈의 인도아래 啓示를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敘述하려고 노력한다. 요한은 記錄된 하나님의 말씀의 目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그 믿음의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20:31) 이 생명을 믿음으로만 알게 된다고 하였으니 (요일5:13)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神知識은 성경에서 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主要目的은 神知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러므로 성경은 神自身の 特別啓示의 文書로서 우리를 救援에 이르도록 한다.⁵⁵⁾ 특히 文書樣式으로 구원에 이르는 特別啓示가 되도록 하나님 스스로 특별 간섭 하셨다고 한

55) Calvin, Ibid., 1:6:1

다.⁵⁶⁾ 이 必要性은 人間이 罪中에서 無知하게 됨에서 오는 것이며 이 啓示가 文書化되는 必要性은 人間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도 不安定하기 때문이다. 老人이 되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眼鏡의 도움이 必要하듯이 성경이 기록된 特別啓示로서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아는 靈的 視力이 어두워진 자를 볼 수 있게 하는 靈的 眼鏡⁵⁷⁾으로서 역할하게 한 것이다.

III. 神知識의 確定

1. 聖靈의 證據(Testimoniun Spiritus Sancti)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일어난 믿음이 아니고는 참된 신앙은 없다. “성령의 증거” 教理는 一般의 信仰教理의 摘用 또는 信仰의 產出에 성령이 作用하는 教理이다. 일찌기 B. B. Warfield는 말하기를 “칼빈이 말한 성령이 救援에 摘用되는 一般의 教理와 성경증거와 그 教理摘用에 있어서의 성령의 證據라는 特殊教理는 불가피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聖靈이 印을 치신것 외에는 참된 信仰은 없다는 一般的 教理의 摘用일 뿐이다”⁵⁸⁾고 했다.

칼빈은 성령의 證據를 말할 때 “모든 사람들로 부터 區別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특유한 能力을 주시기로 계획된 하나님의 役事”⁵⁹⁾라고 한다. 이 특유한 能力은 곧 “구원의 신앙”을 말하는 바 칼빈은 많은 同意語를 가지고 말한다. 즉 “참된신앙”(true faith) “건전한신앙”(Sound faith), “경건자의 확실성”(the certainty of the pious), “참 경건에 근본적인 보증”(that assurance which is essential to true piety), “구원에 이르는 지식”(Saving Knowledge), “영생의 확고한 보증”(a solid assurance of eternal life) 등이다.⁶⁰⁾

이와같은 것은 성령의 證據가 아니고는 心靈에 생길 수가 없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4,15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했는데 사실상 罪로 墮落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어두워진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啓示는 聖靈의 照明과 證據가 없이는 分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것을 “祕義的”(secret), “內面的”(internal or inward)으로 사람의 심령에 聖靈이 役事하시는 것이라 말한다.⁶¹⁾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冊인 성경의 참된 內容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우리는 성경의 祕義를 믿게 하는 “성령의 內的 教訓”(an inward teaching of the Spirit) 또는 “성령의 祕義的 證據”(a secret testimony of the Spirit)라고 부를 수 있다. 이로서 성경이 하나님으로 부터 온 것임을 모든 理性的 理解를 넘어서 靈的으로 確信하게 하는 것이다.⁶²⁾ 심령에 성령의 內的 役事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神性이 直觀적으로 理解할 수 있는 새로운 靈的 感受力이다. 성령으로 照明됐다는 것은 우리의 判斷이나 다른 어떤 判斷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人間の 判斷을 超越하는 確實性을 가지고 聖靈이 直接으로 役事하여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意識은 하늘에 온 啓示에 의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다. 어떤 論證으로가 아니고 神的 恩賜로 오는 直接的 意識에서 갖게 되는 persuasio, notitia, sensus⁶³⁾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創造的 行動으로 우리에게 심어줄 것인데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判斷하느니라”이 “성령의 證據” 教理는 누구보다도 칼빈이 確信있게 證據해 주었던 것이다.⁶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聖靈의 證據가 결코 記錄된 啓示를 凌駕한다거나 補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啓示로 確認하는 것이다. 성령의 證據는 우리에게 새로운 眞理를 啓示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啓示된 말씀을 有效하게 確證하는 것이다.⁶⁵⁾ 이리하여 罪로 어두워진 人間の 마음에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함으로 有效한 啓示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의 神知識의 客觀的 要因을 供給하고 “성령”은 主觀的 要因을 供給한다. 이 客觀的, 主觀的 要因들이 合함으로서 結果를 얻게 된다. 神의 모든 客觀的 啓示는 말씀안에 있다. 그러나 이 啓示를 理解하는 모든 主觀的 能力은 성령의 뜻에 있다. 그래서 “聖靈의 內的 證據”라고도 한다.

사람의 마음에 神知識을 產出하는 結果는 말씀이나 聖靈이 單獨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직 兩者가 一致할 때에 神知識은 우리에게 可能할 뿐만 아니라 또한 確實하게 된다. 그러므로 칼빈은 神知識의 供給을 말씀속의 客觀的 啓示와 聖靈의 主觀的 證據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人間에게 보다는 특별히 자기백성들, 選擇받은 者, 自己教訓을 有效하게 하기로 決定한 者들에게 豫定 되었다고 한다.⁶⁶⁾

神知識은 사람이 神을 알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神이 알게 해주어야 되고 神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知識이다. 神은 自身을 아는 知識을 사실 神을 알기를 꺼리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神이 말씀과 聖靈으로 自身의 知識을 有效하게 주

56) *Ibid.*, 1:6:2.3
 57) *Ibid.*, 1:6:1
 58) B.B.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 72
 59) Calvin, Institute, 1:7:5
 60) Warfield, *Ibid.*, p. 76
 61) Calvin, *Ibid.*, 1:7:4.5; 1:8:13

62) *Ibid.*, 127:4
 63) *Ibid.*,
 64) Warfield, *Ibid.*, p. 79
 65) Calvin, *Ibid.*, 1:9:3, Warfield, *Ibid.*, p. 81
 66) *Ibid.*, 1:6:3

신자들 외에 神을 알자가 없다.⁶⁷⁾

말씀과 聖靈은 自己 百姓들의 靈魂에 永生이 되는 神知識을 남겨 하는 神의 役事의 二要因이 되는 것이다. 말씀의 機能은 靈魂에게 믿을 수 있는 客體가 되는 것이고 이 客體를 믿는 信仰을 靈魂속에 일으키는 것이 聖靈의 機能이다. 어느 편도 다른 편의 일을 하거나 또 다른 편에 상관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證據는 陳述的 啓示나 우리속에 盲目的 確信이 생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本質上 그것은 聖靈의 役事로서 우리의 意識을 主張하여 우리의 本質, 機能등을 變化시켜 우리가 神을 認識하게 되고, 神을 依支하고 사랑하며 神의 말씀을 聖靈의 쓰시는 道具로 使用하여 神을 알게 된다. 이것은 聖靈으로 우리 心靈속에 役事하심으로 온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聖靈의 證據라고 한다.⁶⁷⁾

J. I. Packer는 神知識에 있어서 聖靈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⁶⁹⁾

첫째로 聖靈이 없이는 福音도 없고 聖經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證據로 살아 보내셨는데(요15:27; 행1:8) 그것을, 理解하거나 전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에게 聖靈을 보내어 모든 眞理를 가르치게 하여 저희의 過誤를 免케 하셨다.

“保惠師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聖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4:26) “眞理의 聖靈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眞理 가운데로 인도 하시리니 그가 自意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將來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3)

둘째는 聖靈이 없이는 믿음도 重生도 없었을 것이다. 복음의 빛이 비추이고 있으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昏迷케 하여 그리스도의 榮光의 福音의 光彩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고후4:4)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聖靈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3, 5)

셋째는 聖靈께서 教會에 머물러 그리스도를 證據케 하셨다. 聖靈께서 使徒들에게는 啓示와 靈感으로 하시되 後代의 모든 이들에게는 聖靈의 照明으로 證據하셔서 눈먼 자의 눈을 떴게하고 靈的 視野를 찾게하여 福音이 참으로 하나님의 眞理이며 聖經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罪人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67) Warfield, Ibid., p. 83

68) 이 敎理를 믿는 칼빈의 후계자들은: Willia Cunningham, Charles Hodge, Abraham Kuyper Herman Bauinck, Berjamin Warfield등이다.

69) J. I. Packer, Ibid., pp. 61-2

劣等感과 適應

金 龍 燮*

<目 次>

- I. 序 論
 - I-1. 問題의 提起
 - I-2. 研究의 目的과 課題
 - I-3. 研究의 範圍와 限界 및 方法
- II. 劣 等 感
 - II-1. 劣等感의 意味
 - II-2. 劣等感의 原因과 種類
 - II-3. 劣等感의 發生期
- III. 劣等感과 適應
 - III-1. 適應의 意味
 - III-2. 適應의 形態
 - III-3. 劣等感-適應의 力學
 - III-4. 劣等感의 反應樣式과 適應
- IV. 健全한 生을 爲하여-結語
- 參 考 文 獻

I. 序 論

I-1. 問題의 提起

弱肉 强食, 適者 生存의 原理가 支配하는 人間의 生의 樣態가운데 하나는 不斷한 葛藤과 競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社會속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人間은 누구나 이 갈등과 경쟁속에서 살아 남기 爲해, 그리고

*教授, 敎育學